

弘報室 : (02)
6050-3603~6

* 이 자료는 7/1(月)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6/30(日) 11:00부터

※ 문의 : 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02-6050-3471, 010-5343-9470), 이종명 과장(02-6050-3472, 010-4611-7375)

‘건설·조선·철강·유화, 하반기도 해뜰 날 없다’ <商議 산업기상도>

-  정보통신기계  자동차섬유  건설·조선·철강·유화 -

-  갤럭시3옵G2 스마트기기 출시 ‘정보통신’, 中 재고소진 효과 ‘기계’
-  주간연속2교대 생산차질 극복 ‘자동차’, FTA 효과 ‘섬유’
-  세일가스 역풍 ‘유화’, 中日 수출공세 ‘철강’, 바닥권 탈출 기미 ‘건설·조선’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불투명한데다 중국·일본과의 경쟁력 약화로 우리 산업의 기상전망은 하반기에도 그리 나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 조선, 철강, 유화 업종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별들 날을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10개 업종별단체와 공동으로 ‘2013년 하반기 산업기상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경기회복과 새 스마트기기 출시효과가 기대되는 정보통신, 대중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기계업종은 ‘맑음’으로 조사됐다. 이어 미국 시장 회복세를 전망한 자동차, FTA 효과를 기대한 섬유업종도 ‘구름조금’으로 전망됐다.

반면, 정유, 석유화학, 철강, 조선, 건설 등 5개 업종은 별이 들지 않는 ‘흐림’으로 전망됐다. ‘정유’와 ‘석유화학’업종은 세일가스 개발의 역풍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를 그 이유로 꼽았고 ‘철강’은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공세로 수출애로를 겪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건설’과 ‘조선’업종은 올해 상반기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하반기에도 불황탈출은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표> 하반기 산업기상도

업종	정보통신	기계	자동차	섬유의류	정유	석유화학	철강	조선	건설
하반기 전 망									
상반기 실 적									

상반기와 비교해 기계 업종은 구름조금에서 맑음으로, 자동차, 섬유·외류는 흐림에서 구름조금으로 한계단씩 나아질 것이나 나머지 업종은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관측됐다.

갤럭시3 등 출시효과 ‘정보통신’, 中 재고소진효과 ‘기계’ 활황국면 이어갈 듯

정보통신업종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가장 쾌청한 업종으로 전망됐다. 하반기는 삼성 갤럭시노트3, LG 옵티머스G2 출시 기대감으로 국내산 휴대폰의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미국경제 회복과 함께 IT제품수요, 모바일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엔저의 영향으로 평판TV, 디스플레이, LED 분야의 수출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업종도 ‘맑음’으로 전망됐다. 상반기에 중국시장에서 굴삭기 등의 재고가 소진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대중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미국시장 수출회복도 예상되고, 내년에 소치동계올림픽을 치르는 러시아의 건설기계 수요가 꾸준히 수출이 상반기대비 5.5%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엔저기조 영향으로 해외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은 한층 심화될 듯하다.

주간연속2교대 생산차질 극복 ‘자동차’, FTA 효과 기대 ‘섬유의류’ 호조 예상

자동차업종은 주간연속2교대 시행으로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5%의 생산차질이 발생해 ‘구름’이었으나 하반기에는 생산성 향상이 기대돼 ‘구름조금’으로 예보됐다. 미국 자동차시장의 회복세와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돼 수출은 상반기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제너시스와 쏘울의 후속모델, 소형 SUV 등 신차와 전기차 출시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상반기 현안이었던 주간연속 2교대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통상임금, 주말특근, 사내하청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요인은 하반기 생산차질의 암초가 될 전망이다.

섬유·외류업종도 ‘구름조금’으로 호조세 진입이 예상된다. 판매부진과 재고증가로 감산했던 화섬업체들이 설비를 정상가동하고 한-미, 한-터키 FTA효과 가시화로 수출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 원단수요증가도 예상돼 상반기 대비 섬유수출은 3.5% 늘어날 전망이다. 내수는 ‘아웃도어 호황, 남성복·여성복 불황’이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생산차질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셰일가스 역풍 ‘유화’, 中日 수출공세 ‘철강’, 불황지속 ‘건설조선’ 해돋날 없다

셰일가스 개발로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정유’업종은 흐림으로 조사됐다. 석유화학 기초제품에 해당하는 에틸렌 1톤을 만들 때 한국은 석유추출물인 나프타

를 사용해 제조원가가 1,000달러인 반면, 셰일가스를 활용하는 미국은 600달러, 천연가스로 만드는 중동은 200달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정제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수출감소가 예상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등으로의 수출선 다변화가 하반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업종도 마찬가지다. 미국 셰일가스 개발의 반사적 불이익뿐 아니라 최대 수출처인 중국의 설비신증설 가속화로 TPA, 합성고무 등의 수출위축도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 유가가 안정화될 경우 원가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철강업종도 공급과잉속에 중국과 일본의 공세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돼 ‘흐림’으로 예보됐다. 중국의 수출공세, 일본의 엔저로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1~4월 중국의 철강수출량은 19%나 증가했고 한국과 일본의 최대수출처인 동남아시아에서는 엔저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주요 수요처인 조선, 건설도 불황국면이 지속되고 전력공급도 불안해 내수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강관수출은 꾸준한 편이다.

조선업종도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하반기에는 2010~2011년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및 LNG선 그리고 유로존위기 직전 수주물량이 집중 인도되면 수출이 상반기 대비 33.5% 반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LNG선 및 드릴십 발주 약세 등으로 수주감소가 예상되고 선가상승도 내년이나 기대할 수 있어 회복세 진입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지난 상반기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 건설업종도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취득세 감면시한 종료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반기에는 중견업체의 부도위험 고조, 상위업체의 실적악화, 건설업체의 구조조정도 예상돼 불황국면을 탈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수주규모는 지난해 101조원에도 못미치는 99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업체는 정부에 바라는 정책건의사항으로 △ 세계환경규제 강화에의 대응지원(섬유) △ 셰일가스 등 신에너지 채굴분야 플랜트산업 R&D 지원(기계) △ 일본의 경우처럼 한계주유소 폐업지원 마련(정유) △ 신속하고 투명한 구조조정(건설□조선)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박종갑 상무는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엔저 지속 등으로 대외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실물경제 회복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국회의 입법지원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산업기상도’는 업종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집계하고 국내외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분석해 이를 기상도로 표현한 것이다. ‘맑음’은 매우 좋음, ‘구름조금’은 좋음, ‘흐림’은 나쁨, ‘비’는 매우 나쁨으로 해석할 수 있다. 